

삼국시대 : 등잔 추정 이형토기

등잔 추정 이형토기 - 토기촛대 ⑦



이형 또는 상형토기 가운데 촛대의 고형(古形)을 살펴볼 수 있는 토기의 종류가 있다. 주로 원통부분에 초를 꽂아 쓸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인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초받침 위에 뾰족한 돌출이 나있는 그러한 촛대와는 형태가 다르다. 전자를 원통꽃이식 촛대라고 하고 후자를 뾰족꽃이식 촛대라고 한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시기가 앞선다. 사용한 초는 대개 밀랍(蜜蠟)으로 만든 밀초의 종류이며, 전자의 경우 초꽃이 원통 위쪽이 살짝 벌어져 있어 여기에 초를 꽂으면 안전하고 견고하게 꽂힐 수 있도록 되어있다. 초 역시 이러한 촛대의 특성에 맞춰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을 살짝 가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①은 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토기촛대이다. 박물관에서는 등잔형토기(燈盞形土器)로 소개하고 있는데, 회청색 경질의 토기로서 구멍 뚫린 굽다리 위에 완(盃) 형태의 그릇받침을 얹고 가운데 부분에 원통형 기둥(잔)을 세웠다. 원통형 기둥(잔) 끝은 약간 벌어져 있으며, 기둥 바깥에는 윗부분에 2줄, 가운데 아래쪽에 1줄의 돌대가 둘러져있다. 돌대는 마치 대나무 마디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형식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다. 원통형 기둥(잔) 부분을 받치는 완 형태의 그릇 몸체에는 바깥쪽으로 다시 1줄의 돌대가 둘러져 있으며, 완 몸체는 전체적으로 둥글고 완만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리고 완 몸체를 받친 굽다리 접합부에 3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나팔상의 낮은 굽다리에도 서로 엇갈리게 3개의 구멍을 뚫어 놓았다. 전체적으로 그릇의 소성(燒成)이 아주 양호하며, 회전하여 만든 그릇의 물손질이 잘 살아있다.

이와 비슷한 양식과 형태를 갖춘 것이 사진②와 사진③의 토기촛대이다. 사진②는 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의 토기 촛대이며, 사진③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료이다. 사진③은 박물관에서 '신선로 모양 잔[神仙爐形盞]'으로 소개하고

사진 ① 토기촛대[土器燭臺]/ 삼국시대/ 입지름 5.4cm, 높이 11.6cm/ 출토지 모름/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품/ 경북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도록>, 1988, 122쪽.

사진 ② 토기촛대[土器燭臺]/ 삼국시대/ 높이 9.8cm/ 출토지 모름/ 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품/ 한양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수장 유물선>, 1995, 81쪽.

사진 ③ 토기촛대[土器燭臺]/ 삼국시대, 가야 5-6세기/ 높이 9.5cm/ 경상도 지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글쓴이 촬영(2010.12.8)



있는데, 그 형태가 마치 음식 조리기구인 신선로(神仙爐)를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두 촛대 모두 사진①처럼 그릇 가운데에 원통형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초를 꽂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다소 차이가 있다면 사진①에 비해 사진②와 사진③ 모두 촛대의 초꽂이 원통부분의 운두가 낮게 만들어졌다. 완 형태의 그릇 몸체에 띠(돌대)를 두른 것이나 그릇 받침부분인 굽다리 쪽에 투공(透孔)을 한 형태는 사진①과 사진②, 사진③ 모두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진④는 굽다리와 완 형태의 몸체 없이 대나무마디 모양의 원통형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토기촛대이다. 한양대학교 박물관 소장 자료인데,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원통의 굽기를 달리하여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처리하였다. 회청색 경질의 토기로서 토기 내부의 형태로 보아 촛대로 실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3단으로 구성된 몸체에는 양각의 띠가 대나무마디 모양으로 둘러져 있다. 토기 몸체에 남아있는 일부 자연유(自然釉)는 아마 토기를 구울 때 생긴 잿물이 엉겨 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죽절(竹節) 모양의 토기촛대와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사진⑤와 사진⑥을 들 수 있다. 두 자료는 모두 사진④ 보다 앞선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⑤는 온양민속박물관 개관 14주년 특별전 때 김태일(金泰一) 소장(所藏) 문화재도록(文化財圖錄)에 실린 자료이며, 사진⑥은 디 아모레 뮤지엄 소장품이다. 사진⑤는 통형배(筒形杯)로 소개하고 있고, 사진⑥은 도기죽절형잔(陶器竹節形盞)으로 소개하고 있다. 두 자료 모두 토기의 모양에 따라 붙인 이름인데, 쓰임은 제의(祭儀) 때 뿔잔[角杯]과 같은 술이나 물 등의 액체를 담는 용기로서 음료용 잔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는 김해 양동 고분군이나 함안 도항리 고분군, 경산 임당 유적에서 각각 출토된 예가 있으며, 그 쓰임이 제의용 촛대인지 음료용 잔인지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KEA

• 사진 및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 경북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도록》, 1988
- 디 아모레 뮤지엄, 《디 아모레 뮤지엄 소장품 도록》, 2005. - 온양민속박물관, 《金泰一所藏文化財圖錄》, 1992.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디 아모레 뮤지엄, 온양민속박물관, 호림미술관, 호암미술관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④ 토기촛대[土器燭臺]/ 삼국시대/ 높이 12,5cm, 입지름 5,5cm/ 출토지 모름/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품/ 한양대학교박물관 수장 유물선, 1995, 81쪽.
 사진 ⑤ 토기촛대[土器燭臺]/ 삼국시대/ 높이 23,1cm, 입지름 3,8cm, 밑지름 5,7cm/ 출토지 모름/ 온양민속박물관, 《金泰一所藏文化財圖錄》, 1992, 71쪽.
 사진 ⑥ 토기촛대[土器燭臺]/ 삼국시대, 가야 5세기/ 높이 16,3cm, 입지름 5,1cm, 밑지름 5,1cm/출토지 모름/ 디 아모레 뮤지엄 소장품 도록》, 2005, 191쪽.
 사진 ⑦ 밀초[蜜燭] - 백랍초[白蠟燭]/ 조선시대/ 밑지름 2,5~3cm, 높이 22,5~24,5cm/ 온양민속박물관 소장품